

대통령·앵커·아이돌도 ‘진짜처럼’... 국내 첫 AI 모델

AI 기업인

장세영 머니브레인 대표

지난해 말 국내 최초로 등장한 김현욱 아나운서를 모델로 한 인공지능(AI) 앵커는 실제와 흡사해 AI 기술이 놀라운 수준까지 올라왔음을 보여줬다. AI 앵커를 만든 회사는 AI 영상 합성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머니브레인으로, 앞으로 AI 쇼호스트와 AI 아이돌까지 선보여 ‘국내 최초’ 행진을 이어갈 계획이다.

머니브레인은 지난해 7월 개최된 ‘국제인공지능대전’에서 AI로 문재인 대통령을 똑같이 합성해 연설한 것이 큰 화제가 됐다. 이 내용이 방송에 소개되고 정부부처에서도 관심을 보이면서 AI 영상 합성 사업을 본격화한 것.

장세영 머니브레인 대표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AI 합성 영상을 본 후 우리도 고품질 영상 구현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해 문재인 대통령을 AI로 개발하기 시작했다”며 “문 대통령은 학습 데이터로 삼을 수 있는 영상이 많아 작업이 용이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한·아세안 스타트업 엑스포, 컴업’ 개막식에서도 AI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영상을 선보이기도 했다. 그는 “합성 영상 제작에 보통 5~10시간의 영상이 필요한 것을 박 장관의 영상에서 2시간 정도 데이터만으로 완벽하게 구현해 큰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머니브레인의 인공지능 영어교육 서비스 ‘스픽나우 키즈’.

서울대 전기공학부 재학 중에도 창업을 목표로 벤처동아리에서 활동했고, 대학을 졸업하기 전 회사를 설립했다.

그는 “15년 전에 창업한 회사도 AI와 관련이 있었다”며 “자동차에서 음성 인식으로 작동하게 하는 기술”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머니브레인 이전에 3개의 기업을 창업해 2개 회사를 엑시트했다.

‘알파고’가 큰 이슈가 되면서 그가 AI 에이전트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게 된 게 2016년 머니브레인을 창업한 계기가 됐다. 현재는 ‘대화형 AI 기술’ 개발을 목표로 AI 챗봇은 물론 AI 뉴스, AI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협은행, 신한카드, 서울아산병원 등에 챗봇을 공급하는 성과도 거뒀다.

“다수의 AI 기업들이 영상 합성 분야에 포진해 있지만 AI 음성 합성 기술을 기반으로 3D를 영상화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는 얼굴 특징 추출, 피부 합성, 감정 표현을 위해 자체 기술을 개

특징 추출, 피부합성, 감정표현 등 기술 개발... 신경망 학습통해 제작

AI앵커, 텍스트 300자 1분내 완성 사람들이 AI라는것 알아채지 못해

투자금 91억 ‘스픽나우’ 마케팅 총당 중 법인설립 중... 美·日 진출 ‘시동’



장세영 머니브레인 대표

발했고, 신경망(CNN) 학습 등을 거쳐 실제 사람을 닮은 AI 모델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AI 영상·음성 합성 기술은 전세계적으로 중국의 오픈, 일본 스펙티 등 총 4곳만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구현 난이도가 높은 기술로 꼽힌다.

“AI앵커도 최대 300자의 텍스트를 1분 안에 영상으로 빠르게 합성할 수 있습니다. AI 앵커는 사람들이 AI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완벽한 모습으로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AI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 맞느냐’는 논쟁이 일어나기도 해 뿌듯합니다.”

머니브레인은 또 2개월 후 한중편 방송을 통해서도 AI앵커를 선보일 계획이다.

“AI 쇼호스트도 선보이기 위해 홈쇼핑 방송사와 논의 중입니다. 또 하반기에는 AI 쇼호스트가 모바일 커머스 등장에 방송을 진행하는 ‘라이브 커머스’ 앱을 자체적으로 론칭할 예정

입니다.”

장 대표는 AI 아이돌을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실제 한류스타를 AI로 만들거나 ‘아담’과 같은 가상의 AI 연예인을 개발하는 2가지 방식이 가능하다.

머니브레인은 최근 ‘에듀테크’ 사업에도 집중하고 있는데, VR(가상현실) 분야에서 KT와 협력해 VR기기용 콘텐츠를 제작해주고 있다. 자체 서비스 중인 ‘스픽나우’는 스마트기기로 앱에 접속해 AI튜어와 대화를 주고받으며 영어 회화를 학습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의 집중력이 떨어지면 알림을 해주고, AI 출처체크 기능도 있어 얼굴인식으로 본인이 맞는 지 체크합니다. 특히 샘 해밍턴, 샘 오취리 등 유명 방송인이나 귀여운 캐릭터를 AI로 제공하다보니 학습자들이 재미있어합니다.”

코로나19로 학원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이 많아지면서 스픽나우는 매일 매

출이 전달 대비 200% 이상 성장하고 있다. 4월에는 3세~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스픽나우 키즈’도 선보였다.

머니브레인은 지금까지 91억원의 투자를 유치해 ‘스픽나우’의 마케팅 비용을 충당하고, 기술 개발에 투자해왔다. 특히 중국 최대 벤처캐피탈인 IDG캐피탈에게 받은 투자를 바탕으로 중국 사업도 준비 중이다.

“중국에서 직원을 채용하고 법인 설립을 진행 중입니다. 국내처럼 AI 앵커와 AI 교육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국내와 중국에서 사업화에 성공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추가 투자를 받을 생각입니다.”

또 미국은 물론 일본, 대만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머니브레인의 AI 영상 합성 기술이 나쁜 AI인 딥페이크와 기술적으로 유사한 만큼,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딥페이크 검출 기술 연구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를 통해 영상의 진위 여부를 완벽하게 판단하는 딥러닝 모델 ‘AI 페이크 파인더’를 내놓을 계획이다.

“저희는 ‘AI가 사람처럼 대화하는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트렌드를 준비하는 데 핵심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AI 기술을 확대해 쇼핑, 화상회의, 엔터테인먼트는 물론 방송, 금융 등으로 사업 저변을 확대할 생각입니다.”

그는 머니브레인을 ‘인공지능 기술의 일상화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metroseoul.co.kr

간단한 조종, 휴대 쉬워 입문용으로 딱!

구기자의 뜬구르구

DJI 드론 ‘매빅에어2’

출발위치로 복귀 ‘리턴투홈’ 유용 ‘접이식 프로펠러’ 휴대·보관 장점



매빅 에어2 기체 모습. /구서윤 기자

교외에 나가면 머리위를 날아다니는 드론을 종종 마주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드론이 일상에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는 대목이다.

DJI가 지난 11일 국내 시장에 출시한 신제품 드론 ‘매빅 에어2’를 체험해 봤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드론을 날려보는 것은 처음이었지만 조종법은 간단했다. 조종기 전면에 위치한 두개의 조이스틱으로 방향과 높이를 조절할 수 있고, 아래에 전원버튼과 리턴투홈 버튼, 모드 선택 버튼이 있다.

안전을 위해 눈에 보이는 곳에서 드론 작동법을 숙지한 후 먼 거리까지 드론을 이동시켰다. 드론이 시야에서 전혀 보이지 않지만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드론의 위치와 드론의 시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드론을 원래의 출발 위치로 자동으로 돌아오게 하는 리턴투홈 기능은 초보자에게 굉장히 유용했다. 착륙하는 위치도 거의 정확했다. 매빅 에어2는 프로펠러를 접을 수 있는 접이식 드론으로 휴

대와 보관이 용이한 것도 장점이다.

매빅 에어2의 촬영 성능은 대폭 향상됐다. 카메라 센서 크기를 키웠으며 8K 영상 촬영도 지원한다. 소니의 48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했다. 매빅 시리즈 최초로 4K 60프레임, 120Mbps의 영상 촬영이 가능하다.

매빅에어2는 570g으로 가벼운 소형 드론에 속하는데 가벼운 무게에 비해 안정적인 비행을 보여줬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상황에서 기체가 흔들리긴 했지만 제자리를 찾아왔다. 장애물도 감지해 새로운 경로를 탐색한다.

저렴한 입문용 드론이 많긴 하지만 꾸준한 취미로 고품질의 사진과 영상 촬영을 목적으로 한다면 충분히 구매를 고려할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한다. 매빅 에어2 가격은 99만원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수백억 투자유치... AI기업 ‘코스닥 노크’

알체라 얼굴인식분야... 10월 목표
솔트룩스 챗봇 등 성과... 내달 상장
뷰노 의료데이터 학습·제품화 등
다음소프트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인공지능(AI) 기업들이 IPO(기업공개)에 속도를 내고 있어 하반기부터 대표 AI 기업들이 차례로 코스닥에 입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AI대표기업인 솔트룩스·뷰노·알체라·다음소프트는 물론, AI 신약 개발사 스탠다임, AI 기반 3D프린팅 의료기기업체인 애니메디솔루션이 코스닥 상장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들 기업의 상당수는 이미 수백억원대의 투자를 유치할 정도로 AI에 투자 자금이 풀리고 있다.

이는 정부가 올해 ‘AI 일등국가 원년’을 목표로 세울 정도로 AI 도입이 국내에서도 지난해부터 가장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택트(비대면) 트렌드로 이 같은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AI 얼굴인식 분야에 주력하고 있는 알체라는 최근 신영증권에 주관사로 성장성추진특례상장으로 준비하고 있다. 알체라는 오는 10월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IPO 준비에 매진할 계획이다.



알체라는 2018~2019년 미국표준기술연구소(NIST)가 실시한 얼굴인식벤치마크(FRVT)에서 안면인식 분야 국내 1위를 차지해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의 산페드로스퀘어 마켓에 AI 안면인식 솔루션을 공급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 회사는 지금까지 누적 170억원의 투자를 받았다.

AI 플랫폼 기업인 솔트룩스는 지난 달 29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닥 상장을 위한 본격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솔트룩스가 이번에 공모하는 주식수는 75만주로, 희망 공모가 밴드는 2만 4000원~3만원이다. 공모 예정 금액은 180억원~225억원이며, 29일~30일 양일간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이 진행된다.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 맡았다.

솔트룩스는 디지털 휴먼, 챗봇, 콜봇 등 대화형 AI사업에서 성과를 내며, 최근 3개년 연평균 25% 이상 높은 매출

성장세를 나타냈다. AI 의료 기업인 뷰노는 최근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을 위한 기술성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며 심사를 통과했다. 뷰노는 이번 결과를 기반으로 코스닥 상장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뷰노는 나이스디앤비, 한국기업데이터 두 기관이 진행한 기술성평가에서 모두 A등급을 획득했으며,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뷰노는 의료데이터 전처리·학습·제품화 등 AI 솔루션 개발 전 과정에 최적화된 자체 딥러닝 엔진 ‘뷰노넷’을 기반으로 경량화된 AI 모델을 개발해왔다. 지금까지 투자 유치 금액은 200억원 정도이다.

AI 솔루션 기업인 다음소프트는 지난 달 25일 한국거래소에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했다. 상장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다음소프트는 지난 달 상장 기술성평가에서 최고 수준인 ‘AA’ 등급을 받았으며, 지난해 매출 163억원, 영업손실 3억원을 기록했다. 다음소프트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사내 벤처로 설립된 후 2000년 분사한 회사로, 대표 서비스인 ‘소셜메트릭스’는 금융·공공·유통·제조 등 분야에서 AI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채윤정 AI전문기자